

## 이달의 법령정보

### ■ 건축 관계법령 일부 개정 시행

법령명	공포 일자	시행 일자	주요내용	
			종전(개정 전)	현행(개정 후)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35호)	'23.8.1	'23.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면도 및 단위세대평면도 발급 및 열람 가능한 자</li> <li>- 건축물 소유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li> <li>-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li> <li>- 건축물이 경매·공매 중이거나 건축물에 대한 법원의 감정 촉탁이 있는 경우</li> <li>- 건축물 소유자로부터 건축물의 설계·시공 또는 중개 등을 의뢰받은 자</li> <li>- 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인</li> <li>-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등</li> <li>-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이용자의 안전, 장애인 등의 이용 편의, 그 밖의 공익 목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면도 및 단위세대평면도 발급 및 열람 가능한 자</li> <li>- (좌동)</li> <li>- (신설) 건축물의 관리자로 부터 건축물의 점검을 의뢰 받은 자</li> </ul>

## 건축계 소식

### 황정은 건축사(제이이건축사사무소), 건축사회관 1층 '건축사아카이브라운지' 디자인공모 당선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아카이브라운지 디자인공모 심사위원회가 총 네 차례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황정은 건축사의 '나의 아틀리에'를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건축사회관 1층에 설치되는 '아카이브 홀'은 회원이 협회를 방문할 때 회원 편익을 위한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의무가입을 맞아 건축사회관을 보다 회원 위를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이상대 심사위원장은 "건축사아카이브라운지는 건축사들을 위한 공간인 만큼 이곳을 미래 세대인 신진건축사가 설계하고 완성해 더 의미가 클 것"이라며 "건축사의 업무특성을 감안한 전시, 작업, 회의 등 다양한 공간 제안이 많았으며, 협회의 커뮤니티 특성과 기능을 디자인적으로 표현한 우수성이 돋보였다. 공개 공지와 전면테라스 활용 방안 등 좋은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작품이 많았다"고 총평했다.

심사위원회는 대한건축사협회의 상징성, 공간의 활용도, 디자인적인 아이디어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협회장상의 황정은 건축사의 '나의 아틀리에'를 두고 "공간에 대한 아이디어와 디테일이 좋은 작품"이라고 평했다.

가작은 신병민(주.무주건축사사무소), 정지영(건축사사무소양양) 건축사에게 돌아갔다. 특별상은 최순곤(주.에이더스건축사사무소), 이동근(공간나눔건축사사무소), 여상권(모아건축사사무소), 양형모(주.종합건축사사무소아키텍트) 건축사가 받았다. 한편 이번 디자인공모 심사는 박성준(주.건축사사무소 우리공간), 이상대(주.스페이스온 건축사사무소), 김철훈(디오21 종합건축사사무소), 강병수(길건축 건축사사무소), 홍성용(건축사사무소 NCS lab), 박정연(그리드에이[Grid-A] 건축사사무소), 윤규섭(주.씨와이 건축사사무소), 천의철(주.건축사사무소 에스아이) 건축사가 진행했다.



황정은 건축사 제이이건축사사무소



### ■ 수상자 명단

구분	수상금	건축사	사무소
협회장상(1작품)	1,500만 원	황정은	제이이건축사사무소
가작(2작품)	200만 원	신병민	(주)무주건축사사무소
		정지영	건축사사무소 양양
특별상(4작품)	100만 원	최순곤	(주)에이더스건축사사무소
		이동근	공간나눔건축사사무소
		여상권	모아건축사사무소
		양형모	(주)종합건축사사무소아키텍트

### 2023년 전국여성위원회 간담회 개최

대한건축사협회는 7월 3일 건축사회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전국여성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손성기 위원장 등 본협회 여성위원회 위원과 자문위원, 17개 시·도건축사회 여성위원장이 모인 이날 간담회에서는 올해 본협회 여성위원회의 주요 활동 계획에 대해 논의했으며, 각 시·도건축사회 여성위원회와 동호회 활동 현황 및 현안을 공유했다.

한편 석정훈 본협회장은 2023 UIA 코펜하겐 세계건축대회 일정으로 현장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영상 인사말로 간담회 개최를 환영하고 격려했다.

### 부산광역시건축사회, 부산시와 '하안지붕'으로 녹색건축 실현

부산시건축사회가 부산시와 6월 23일부터 7월 말까지 에너지 취약계층 34개소에 대한 '하안지붕' 사업을 실시한다.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올해도 부산시와 함께 팔을 걷어붙인 것.

하안지붕이란 햇빛과 태양열 반사 효과와 단열성이 있는 흰색계열 페인트를 칠하는 방법으로 지붕 열기를 줄여 실내 온도를 4~5도 낮추는 건축공법이다. 일반지붕은 햇빛의 15%를 반사시키지만, 흰색 페인트를 칠하면 햇빛과 열을 75% 이상 반사시켜 건물 온도를 낮출 수 있다. 온도를 낮추어 에어컨 사용량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원리다.

이 사업은 민·관이 힘을 합쳐 소규모 단독주택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친환경 차열 특수페인트를 무료로 시공해 건물에너지 효율을 높여 온실가스를 줄이고, 도심의 열섬현상을 방지하는 녹색건축물 전환사업이다. 2019년부터 부산건축사회와 노루페인트의 재능·재원 기부로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BNK부산은행, 부산도시공사(SK E&S),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의 후원으로 작년 14개소였던 대상지를 상·하반기로 나누었으며 상반기에만 34개소를 대상으로 선정해 규모를 대폭 늘렸다. 노루페인트가 친환경 차열 특수페인트를 제공하고, 부산시와 부산건축사회가 BNK부산은행과 부산도시가스(SK E&S)의 후원을 받아 사업대상지에 시공한다. 시공에는 부산건축사회 임원을 포함한 13개 위원회, 자원봉사회원, 부산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한다.

부산시건축사회 최진태 회장은 "2030 부산월드엑스포가 개최되는 해에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기후위기 문제에 적극 대응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하안지붕 사업이 가지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특히 올해는 대형 후원사들의 참여로 사업 규모가 대폭 커지게 됐다. 뜻깊은 일에 함께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